

도내 초등학생 학력신장 시스템 운영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교사 등 800여명 대상 '특별한클래스' 연수

도내 초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3~14일 이틀간 전주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교사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한클래스' 운영 교사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한클래스는 △ AI 기반 맞춤형 학습 △ 학습플래너(빛나라! 오늘해!) 활용 △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 학습코칭 실천 등 초등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학력신장 시스템이다.

먼저, AI 기반 맞춤형 학습은 진단평가와 총괄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교과 학습 및 평가 콘텐츠를 수준에 맞게 제공하는 AI 기반 코스웨어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또는 가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이어 '빛나라! 오늘해!'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늘 기록하고 확인하며 해내는 우리'의 줄임말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실행·성찰하도록 제작한 초등 학습플래너다. 다음 달부터 희망 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총 2,3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혹은 교육결손 학생 5,400여명에게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부족한 교과 내용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AI 맞춤형 학습과 '빛나라! 오늘해!' 플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14일 이틀간 전주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교사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특별한클래스' 운영 교사 연수를 개최한다.

너를 활용해 교과보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코칭 실천단은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학습코칭 현장 연구, 사례 나눔 등을 통해 학력신장 시스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3분의 2가량 감소했다"며

서 "올해는 AI 기반 코스웨어, 학습플래너, 교과보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공대-인니 국립대 공대, 공동 교육·연구 합의

헤리 학장 등 전북대 방문 연구 인프라 견학 후 서명

전북대학교 공과대학(학장 나창운)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공과대학(학장 헤리 헤르만시아 Heri Hermansyah)와 공동연구 및 인적·물적 교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대 공대 헤리 학장 일행은 13일 전북대 공대를 찾아 이행합의서(Agreement for Implement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대학은 서로의 강점 분야를 소개하고, 향후 교육 및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행 계획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이행 계획에는 교육·연구 분야에서 폭넓은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은 QS 세계대학평가 기준으로 세계 237위에 랭크돼 있다.

작년 7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화학공학과 방방 헤루(Bambang Heru) 학과장 일행이 전북대 화학공과대학 운영상



인도네시아 국립대 공과대학 헤리 학장 일행은 13일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을 찾아 이행합의서(Agreement for Implementation)를 체결했다.

대학원 주임교수를 방문해 반도체, 이차전지,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현재 국제 공동 연구 과제 수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대 화학공과대학은 US News 세계대학평가에서 화학공학 분야 167위다. 운영상 교수는 "이번 합의는 화학공과대학에서 시작한 협력이 이제 공과대학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국제협력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나창운 공과대학장은 "세계적 인재의 보고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의 우수 인적 자원과 전북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협력연구를 도모하고, 국제공동연구, 대학원생 유치, 복수학위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日 시마네대학교와 교류 확대... 글로벌30 사업 협력 약속

관심 공동 연구분야 발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일본 시마네대학교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 대학은 2013년 첫 MOU를 체결하고 학생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시마네대학교 오타니 히로키(Otani Hiroki) 총장이 전북대를 찾아 인국찬 대외협력부총장과 조화립 국제처장 등을 만났다.

이날 협의에 따라 양 대학은 기존보다 교환학생 수를 늘리고, 전북대가 추진하는 단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시마네대학 학생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 대학이 관심 있는 공동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전북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30 사업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인국찬 대외협력부총장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마네대학교와 우호



지난 10일 일본 시마네대학교 오타니 히로키(Otani Hiroki) 총장이 전북대를 찾아 인국찬 대외협력부총장과 조화립 국제처장 등을 만났다.

적인 협력관계를 이어왔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양 대학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대학이 추진하는 유학생 5천 명 유치에 더욱 힘을 보태고, 나아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양 대

학을 오가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선생님의 노고·헌신에 감사”

서거석 교육감, 스승의 날 맞아 서한문 통해 감사 인사

“선생님의 노고와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

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3일 서한문을 통해 서 교육감은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 교육계의 내외적인 급격한 변화로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약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육감은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전북자치도교육청, 고위직 성범죄 예방교육

교장·교감 등 2890여명 대상... 전주 등 6곳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 대상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

장 등 총 2,890여 명이다.

5월 중에 전주·남원·완주·장수·임실·부안 지역에서 연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재단과장은 “교육 주체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뉴질랜드 PIHMS와 MOU 체결

문화관광 분야 긴밀 협력 중심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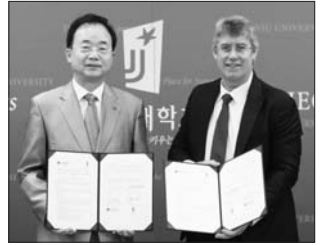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일 뉴질랜드 사립대학인 Pacific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School(이하 PIHMS)과 교환학생 과정 등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 본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과 윤찬영 대외부총장, 심영국 국제교류원장, PIHMS 딘 맥캘럼(Dean McCallum) 마케팅 이사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문화관광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관련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대학의 강점인 문화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교 상호협력을 이룰 나가지”고 말했다.

심영국 국제교류원장은 “현재 5개



학과에서 운영하는 영어트랙이 뉴질랜드 교환학생을 통해 더욱 확대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PIHMS 관계자는 “최근 한류로 인해 뉴질랜드 학생들의 한국문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대학과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전주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동동학술대회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소장 한동승)와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0일 자유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회장 장신동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대희) 등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4곳의 주최기관장들의 축사로 시작해 법무법인 정세김형진 변호사가 ‘저작권의 산업화 경향과 그 문제들’로 기조 발표를 했다.

김시열 교수(전주대)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 부분을 알리도록 하는 절차의 필요성과 모델을 제시했다.

윤영선 교수(한남대)는 소프트웨어



의 유사도 분석 시 기존 텍스트 기반의 비교·분석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호출그래프의 동형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동승 소장은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기술을 수단으로 한 저작권 문제 해결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무형 가치에 기반한 지역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